

‘불쌍사나운’ 전남권 국립 의대 공모 갈등

순천대 총장·순천시장 ‘5자 회동’ 불참 방침 재확인 확 막힌 ‘소지역 이기주의’에 의대 신설 무산 우려 “정부, 전남도 공모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지적도

전남도가 ‘공모 방식을 통한 국립의대 설립 대학 추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열기로 했던 ‘5자 회동’(김영록 지사, 목포대·순천대 총장, 목포시장·순천시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의대 공모’를 둘러싼 전남도와 순천시 사이 불협화음 같은 것이 이어지면서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신설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확산하고 있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은 오는 12일 보성군청에서 열릴 예정인 의대 공모 관련 5자 회동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총장과 노 시장은 지난 7일 요구했던 의대 유치 관련 기존 용역 결과 공개

등 3개 조건에 대한 전남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 5자 회동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불참 관련 공문을 전남도에 보낼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보내 ‘정부 주관 의대 신설 공모 추진’을 요구하는 등 전남도에 대립각을 세웠다. 입장문은 이 총장과 노 시장,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권항열(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당선자 등 5명이 공

동합의한 내용이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는 공모 평가 항목과 기준, 공모 주관 용역기관 선정 등 이해당사자들 간에 조정·합의해야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단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며 “전남도가 공모를 강행해 추진하더라도 결과를 누가 인정하고 수용하겠다”고 전남도 주관 공모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순천지역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판’을 깔아준 상황에서 결국 순천이 아니면 안된다는 ‘소지역주의’에 매몰

돼 갈등 구조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영록 지사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공모 방식의 대설패 대항 추천’ 계획을 설명한 데 대해, 조 장관이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추진하면 된다”고 답하며 전남도 공모에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힌 만큼 순천지역의 반대 논리에 설득력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김영록 지사의 전남권 의대 신설 건의에 “어느 대학에 할 것이지 하는 문제를 전남도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20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전남권 의대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순천지역 간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 양상을 끝내고 전남권 의대 신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양측의 지속적인 대화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남도의 공모 방식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정기자



상생협약의 권리가 민생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점주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민생, 참여연대,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및 상생협약의 권리를 담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하뉴스

광주시, 창업 초기 기업 유치 ‘분주’

파트너십 매칭데이 개최...스타트업-투자자 1:1 상담

광주시가 광주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유치를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시는 9일 광산구 ‘소셜캠퍼스 온광주’에서 지역 이전 희망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20개 사와 오라클벤처투자 등 투자자 37개사,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파트너십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11월 2024광주창업페스티벌의 사전 교류 행사로 광주시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캡프가 참가 기업을 발굴하고 광주테크노파크,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

과학기술원 등 지역 창업 관계기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중심도시인 광주로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이 증가하면서 전국을 대표하는 창업 지원기관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캡프가 제안해 마련됐다. 행사는 광주지역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20개 사와 투자자 간 투자협약 등 긴밀한 교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또 오라클벤처투자, 전남대기술지주회사, 박병엔젤스 등 투자자 3곳이 참여해 지역 창업기업과 1:1 만남의 장을

통해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정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외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본사 또는 지사의 광주 이전 때 받게 되는 사업화 지원금, 투자 등 다양한 혜택을 설명하고 창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연계망(네트워킹)을 통해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이어졌다. ‘파트너십 매칭데이’는 지역 우수 창업기업을 선발해 대기업·투자자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 공동 협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매월 시행하고 있다. /박선강기자

전남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

도, 16일까지 실시...농약대·대파대 지원 방침

전남도는 9일 “지난 6일까지 이틀간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조사를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선 지난 5-6일 평균 100.7mm(최고 광양 237.2mm, 최저 화순 56.4mm)의 비가 내리며 등 침수 350ha, 구리 등 도북 1천627ha 등 약 1천977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오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작물에 따라 농약대는 ha당 100-250만원,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는 것)는 400-9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전남도는 지난 4월 마늘 2차생장과 매실 저온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반영됐다. /양시원기자

오는 13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전국 최초로 시설작물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14년 만에 재해로 인정돼 2천57ha(3천756농가), 56억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2월19일 집중호우 피해 조사도 실시해 보리·구리·양파 등 2천147ha, 20억원의 복구비를 확정하고 이달 지급한다. /양시원기자

광주시, 5·18사적지 환경 정비

12일까지 4개 구청과 표지석 등 시설물 교차 점검

광주시는 9일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옛 광주적십자병원, 505보안부대 옛터 등 5·18사적지와 표지석 등 관련 시설물을 오는 12일까지 정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5·18사적지 정비를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동·서·남·북구 등 4개 구청이 교차 점검을 펼쳐 5·18사적

지 시설물의 훼손 유무와 환경 정비 범위 등을 검토했다. 5·18사적지 제1호인 ‘전남대 정문’을 비롯한 총 29곳의 5·18사적지 표지석(32개)과 상징조형물(17개)에 대한 세척·보수를 실시하고 옛 광주적십자병원, 국군광주병원 등 보존사적지 4곳에서 쓰레기·잡목·잡초 제거 등 환경 정비

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옛 광주적십자병원, 국군광주병원 등 5·18사적지 건축물의 외벽 도장손상, 장문 파손 등 경관 개선이 시급한 만큼 보수 계획을 세워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5·18사적지는 1980년 5월 당시 민주화운동 진원지, 격전지 등 5·18의 장소성·역사성을 간직한 공간이다. 광주시는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복원·관리하기 위해 1998년 1월2일 전남대 정문 등 24곳을 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29곳의 사적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박선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광고.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정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 | |
|------|------|
| 외상대금 | 빌려준돈 |
| 공사대금 | 투자금 |
| 장비대금 | 약정금 |
| 전세금 | 임대료 |
| 부도어음 | 구상금 |

돈 받아 드립니다

신수동 대로변 코너 대지990㎡ 고급레스토랑 전시장, 외식전문빌딩 급매3.3당 500만원(면적추가가능)

=====

금남로 원각사인접 최고요지 신축7년차 대지980㎡ 8층건물2,200㎡ 급매49억8,000(보1억7,000월2,370

=====

화순 도곡면 원화리 대로변 호화상권 계획관리 6,200㎡ 도로160미터접 전시장, 음식점타운 등 다용도

=====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855호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인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변경공고

「주택법」제15조 및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센터별 지역주택조합 추상계획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열람)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 사업개요
 - 사업명: 양산센터별 지역주택조합 추상계획 아파트 신축공사
 - 위.지: 광주광역시 북구양산동 209-192번지 일원
 - 면적: 13,719㎡ (주거복합용지: 11,293㎡, 상업시설용지: 1,456㎡, 도로: 970㎡)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변경 전): 2024. 04. 30. ~ 2024. 05. 14. (14일간)
 - 공람기간(변경 후): 2024. 05. 10. ~ 2024. 05. 24. (14일간)
 - 공람장소: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동주택과
 - 의견제출서식: 공람장소 비치
- 주민의견 제출
 -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동주택과
 - 제출방법: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공동주택과(☎410-6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급여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